

2018국회직 8급 기출해설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바둑이도 아는 영보이 교재의 매력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영보이다!

멍멍, 나도 영보이로 공부할
거야 ~



1.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2018국회8 문1)

- ① 비행기, 새해, 밑바닥, 짓밟다, 겁나다, 낮설다
- ② 새해, 막내둥이, 돌부처, 알밋다, 깔보다, 본받다
- ③ 새해, 늙은이, 어깨동무, 정들다, 앞서다, 손쉽다
- ④ 비행기, 개살구, 산들바람, 겁나다, 낮설다, 그만두다
- ⑤ 늙은이, 막내둥이, 척척박사, 본받다, 앞서다, 배부르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387, 393, 394, 395, 396)

① 비행기, 새해, 밑바닥, 짓밟다, 겁나다, 낮설다

- ◆ 비행기(파생어): 명사 '비행'과 접미사 '기'와 결합하였으므로 파생어
- ◆ 새해(합성어): 관형사 '새'와 명사 '해'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밑바닥(합성어): 명사 '밑'과 명사 '바닥'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짓밟다(파생어): 접두사 '짓'과 동사 '밟다'의 결합이므로 파생어
- ◆ 겁나다(합성어): '겁(이)'과 동사 '나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낮설다(합성어): '낮(이)'과 형용사 '설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② 새해, 막내둥이, 돌부처, 알밋다, 깔보다, 본받다

- ◆ 새해(합성어): 관형사(새)와 명사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막내둥이(파생어): 명사 '막내'와 접미사 '둥이'의 결합이므로 파생어
- ◆ 돌부처(합성어): 명사 '돌'과 명사 '부처'의 결합이므로 합성어(또한 '돌로 된 부처'를 의미하므로 종속 합성어)
- ◆ 알밋다(합성어): 명사 '알'과 형용사 '밋다'의 결합이므로 합성어(통사적 합성어)

③ 새해, 늙은이, 어깨동무, 정들다, 앞서다, 손쉽다 (O)

- ◆ 새해(합성어): 관형사(새)와 명사(해)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늙은이(합성어): 관형사형 어미 '은'을 생략하지 않고 써주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어깨동무(합성어): 명사(어깨)와 명사(동무)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정들다(합성어): '정(이)'과 동사 '들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앞서다(합성어): '앞(에)'와 동사 '서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에'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손쉽다(합성어): '손(이)'과 형용사 '쉽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④ 비행기, 개살구, 산들바람, 겁나다, 낮설다, 그만두다

- ◆ 비행기(파생어): 명사 '비행'과 접미사 '기'와 결합하였으므로 파생어
- ◆ 개살구(파생어):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의 결합이므로 파생어
- ◆ 산들바람(합성어): 부사 '산들'과 명사 '바람'의 결합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 겁나다(합성어): ‘겁(이)’과 동사 ‘나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낮설다(합성어): ‘낮(이)’과 형용사 ‘설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그만두다(합성어): 부사 ‘그만’과 동사 ‘두다’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⑤ 늙은이, 막내둥이, 척척박사, 본받다, 앞서다, 배부르다
 - ◆ 늙은이(합성어): 관형사형 어미 ‘은’을 생략하지 않고 써주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막내둥이(파생어): 명사 ‘막내’와 접미사 ‘둥이’의 결합이므로 파생어
 - ◆ 척척박사(합성어): 부사 ‘척척’과 명사 ‘박사’의 결합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 본받다(합성어): ‘본(을)’과 동사 ‘받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을’이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앞서다(합성어): ‘앞(에)’와 동사 ‘서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에’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 배부르다(합성어): ‘배(가)’와 형용사 ‘부르다’의 결합에서 단순히 조사 ‘가’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 정답: ③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2)

- ①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을 때에는 넘치지 않도록 골막하게 담아라.
- ② 그는 주춤하더니 다시 돌아누워 시름없는 투로 말했다.
- ③ 가만히 있는 아이를 괜히 뜯적거리려 올린다.
- ④ 마주 보이는 담배 가게 옆대이의 사진관을 본다.
- ⑤ 첫인상부터 늠늠하고 인색한 샌님티가 난다. (X)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2)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93, 194, 305)

- ①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을 때에는 넘치지 않도록 골막하게 담아라. (O)
 - ◆ 골막하게: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게
- ② 그는 주춤하더니 다시 돌아누워 시름없는 투로 말했다. (O)
 - ◆ 시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는 / 아무 생각이 없는
- ③ 가만히 있는 아이를 괜히 뜯적거리려 올린다. (O)
 - ◆ 뜯적거리다: 손톱이나 칼끝 따위로 자꾸 뜯거나 진집을 내다. / 괜히 트집을 잡아 짓궂게 자꾸 건드리다.
- ④ 마주 보이는 담배 가게 옆대이의 사진관을 본다. (O)
 - ◆ 옆대이: ‘옆’을 속되게 이르는 말.

⑤ 첫인상부터 늠늠하고 인색한 샌님티가 난다. (X)

- ◆ 늠늠하다: 성격이 너그럽고 활달하다.
- ◆ ‘늠늠하다’는 긍정적인 말이므로 ‘인색한 샌님티’와 모순이다.

◆ 정답: ⑤

3. <보기>의 외래어 표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8국회8 문3)

< 보기 >	
ㄱ. 게티스버그(Gettysburg)	ㄴ. 알레르기(Allergie)
ㄷ. 컬렉션(collection)	ㄹ. 미네랄(mineral)
ㅁ. 아쿠아마린(aquamarine)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3) ☺영보이 포인트 #26) 외래어 표기법 완벽 정리

ㄴ. 알레르기(Allergie) (O)
 ◆ 알러지(X) / 알레르기(Allergie)(O)
 ☺영보이 암기tip) 알레르기는 몇 음절일까? 4음절이다. 맞아. 알·레·르·기 4음절!!
 ㄷ. 컬렉션(collection) (O)
 ☺영보이 암기tip) 컬러가 다채로운 컬렉션 < 컬러 - 컬렉션 >
 ㄹ. 미네랄(mineral) (O)
 ☺영보이 암기tip 1) 랄랄라 랄랄라 랄라랄라라 ~ .미네랄 먹고 랄프라. < 랄랄라 - 미네랄 >
 ☺영보이 암기tip 1) 미네랄 먹고 지랄하지 마라. 엄마가 미네랄 다시 안 사주신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할게요. TT < 미네랄 먹고 - 지랄 >

ㄱ. 게티스버그(Gettysburg) (X) → 게티즈버그(Gettysburg)
 ◆ 게티즈버그(Gettysburg):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남부에 있는 도시. 가구·직물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남북 전쟁의 격전지로, 국립묘지와 국립 군사공원이 있다.
 ☺영보이 암기tip)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게티즈버그를 즈러밟고 가시옵소서. < 게티즈버그 - 즈러밟고 >
 ㅁ. 아쿠아마린(aquamarine) (X) → 아콰마린(aquamarine)
 ◆ 아콰마린 (aquamarine): 짙은 푸른색을 띠는 녹주석. 아름다운 것은 갈아서 장식품으로 쓴다. ≡남옥(藍玉).
 ☺영보이 암기tip) 아콰마린을 에스콰이어 구두에 달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다. < 아콰마린 - 에스콰이어 >

◆ 정답: ②

4.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4)

- 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 지금의 자본주의가 자본과 시장의 폐해를 제대로 규제하고 제어하지 못한 정치 실패이자 민주주의 실패의 결과인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② 1980년대 초부터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한 결과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부정적 결과들이 구조화되었다.
- ③ 단순하게는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데서, 나아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데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진술의 원인 혹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 ④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분만을 전후한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데, 가족과 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건강증진보다는 건강한 신생아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성적 연구는 예술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보다 오히려 양자 간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예술이나 과학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4) ☺영보이 포인트 #24) 올바른 문장 완벽 정리

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 지금의 자본주의가 자본과 시장의 폐해를 제대로 규제하고 제어하지 못한 정치 실패이자 민주주의 실패의 결과인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O)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워 적절한 문장이다.

② 1980년대 초부터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한 결과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부정적 결과들이 구조화되었다. (O)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워 적절한 문장이다.

③ 단순하게는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데서, 나아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데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진술의 원인 혹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O)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워 적절한 문장이다.

④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분만을 전후한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데, 가족과 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건강증진보다는 건강한 신생아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X) →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분만을 전후한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데, 그 이유는 가족과 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건강증진보다는 건강한 신생아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때문이다’는 원인과 결과에 쓰인다. 따라서 ‘~ 이유는 ~ 때문이다’의 문장으로 써야 적절하다.

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성적 연구는 예술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보다 오히려 양자 간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예술이나 과학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O)

◆ ‘지성적 연구는 ~ 성질의 것이다’로 보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워 문장의 구성이 적절하다.

◆ 정답: ④

5. 작품 창작 연대가 앞선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18국회8 문5)

ㄱ.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것마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파일날, 큰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소리는 듯기만 하여도 흥성시러운 거슬 웨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업는고

ㄴ. 잘 있거라, 째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ㄷ.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 철업든 내 귀로 드렸노라 /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 오늘날 뵈올 수 잇었스면 /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 갇튼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 말하게도 지금은 되엇건만 /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사랏스면!

ㄹ.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ㅁ. 낙엽은 풀-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ㄹ-ㄴ-ㄹ ③ ㄱ-ㄷ-ㄹ-ㄹ-ㄴ
④ ㄷ-ㄱ-ㄴ-ㄹ-ㅁ ⑤ ㄷ-ㄱ-ㄹ-ㄹ-ㄴ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5) ☺영보이 포인트 #31) 지식국어,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완벽 정리

③ ㄱ-ㄷ-ㄹ-ㄹ-ㄴ (O)

◆ 주요한의 ‘불놀이’(1919), 김소월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1925), 김광균의 ‘추일서정’(1940), 김수영의 ‘풀’(1968), 기형도의 ‘빈집’(1989)

* ‘불놀이’(1919) <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것마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파일날, 큰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듯기만 하여도 흥성시러운 거슬 웨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업는고 (주요한의 산문시. 어두운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노래하였다. 우리 시의 전통적인 기본 울조에서 벗어나 자유시의 형식을 취하였고 당대에 우리 문학에 널리 퍼져 있던 계몽성으로부터 벗어나 주관적 정서를 읊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19년 《창조》에 발표되었다.) >

* 김소월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1925) <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 철업든 내 귀로 드렸노라 /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 오늘날 뵈올 수 잇었스면 /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 갓튼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 말하게도 지금은 되엇건만 /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사랏스면! >

* 김광균의 '추일서정'(1940)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회화적 이미지, 1930년대 모더니즘, 가을의 풍경을 제재로 하여 현대인의 쓸쓸하고 황량한 내면 심리, 문명 비판적인 인식. >

* 김수영의 '풀'(1968) <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민중의 풀로 비유하여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함. >

* 기형도의 '빈집'(1989) < 잘 있거라, 짚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 정답: ③

6.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2018국회8 문6)

한 경향이나 한 시대와 같은 몇 개 되지 않은, 그것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일반적인 종합 개념을 만들어내서는, 이러한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개별현상에 접근하여 설득력 있는 종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필자의 '소설의 이론'의 방법론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현실을 대하는 주인공의 유형이 너무 협소한가 아니면 너무 넓은가 하는 양자택일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돈키호테'의 경우 이 한 편의 소설이 갖는 역사적 미학적 풍부함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다른 작가들, 예컨대 발자크나 톨스토이를 두고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이들에게 일종의 개념이라는 외투를 억지로 입힘으로써 큰 문제가 되었다.

- ① 귀납적 사고의 위험성
- ② 다른 이론을 배척하는 태도
- ③ 개념의 왜곡
- ④ 이론의 독재
- ⑤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비난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6)

④ 이론의 독재 (0)

◆ ‘한 경향이나 한 시대와 같은 몇 개 되지 않은, 그것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일반적인 종합 개념을 만들어내서는, 이러한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개별현상에 접근하여 설득력 있는 종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필자의 ‘소설의 이론’의 방법론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현실을 대하는 주인공의 유형이 너무 협소한가 아니면 너무 넓은가 하는 양자택일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돈키호테’의 경우 이 한 편의 소설이 갖는 역사적 미학적 풍부함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다른 작가들, 예컨대 발자크나 톨스토이를 두고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이들에게 일종의 개념이라는 외투를 억지로 입힘으로써 큰 문제가 되었다.’로 보아 소설의 이론이 양자택일적인 협소한 방향으로 지배적이었다. 다시 말해 이론을 독재했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④

7. 다음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2018국회8 문7)

ㄱ. 생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덕성의 문제다.
ㄴ. 그래야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바람직하다.
ㄷ. 생태 위기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이다.
ㄹ. 인간은 삶의 터전이자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ㅁ. 그렇다면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 역시 인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과제다.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ㄱ - ㄹ - ㄷ - ㅁ - ㄴ
- ③ ㄱ - ㅁ - ㄴ - ㄷ - ㄹ
- ④ ㄹ - ㄴ - ㄷ - ㄱ - ㅁ
- ⑤ ㄹ - ㄷ - ㄱ - ㄴ - ㅁ

또한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 성조: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진다. 중국어의 사성 따위가 있다.

◆ 방점: 중세 국어 각 음절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훈민정음》의 표기법. 평성(平聲)은 점이 없고, 거성(去聲)은 한 점, 상성(上聲)은 두 점을 글자의 왼편에 찍었다.

ㄷ. 아래아(·)의 음가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X) → 중세 시대에 아래아(·)는 사용되었지만 음가는 근대 국어 이후에(cf. 근대국어: 17세기 초 ~ 19세기 말) 잃게 되었고 글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후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ㄱ. 된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된소리: 후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기식이 거의 없이 내는 자음. ‘ㄱ’, ‘ㄷ’, ‘ㅌ’, ‘ㅍ’, ‘ㅍ’ 따위의 소리이다.

◆ 불·휼 기·픈 남·곤 북·매 아·니 : 밀·씨 꽃 : 도·코 여·름 ·하느·니

↓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된소리)

↓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된소리)

ㄴ. 중세 특유의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이 있었다.

◆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술 -, -습 -, -줄 -, -줍 -, -술 -, -습 -’(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세 국어는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줍-’(객체 높임법), ‘-이/ 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조사는 ‘하’가 쓰였다.

ㄴ.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 ‘수라(임금의 진시), 보라(색채어의 일종)’는 고유어가 아니라 고려 말에 들어온 몽골 말이 지금까지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호미, 수수 등 여진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 정답: ② ㄴ, ㄷ

9. 다음 글에서 말하는 ‘발전 기술’의 효과를 전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9)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發電)이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과정이나 구동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 연료전지 발전 외에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 기술이다.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 ② 에너지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③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④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8)

-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O)

◆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로 보아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에너지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O)

◆ ‘핵융합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로 보아 에너지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

◆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과정이나 구동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로 보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O)

◆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로 보아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X)

◆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發電)이다.’로 보아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히려 수소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수소 생산 관련 사업은 늘어날 것을 전망된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⑤

10.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10)

- ① 그는 황제를 알현(謁見)했다.
- ② 역사상 여러 나라가 내홍(內訌)으로 패망하였다.
- ③ 그 노래는 누가 작사(詐詞)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 ④ 이번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상쇄(相殺)한 셈이었다.
- ⑤ 나도 무론(毋論) 힘쓰겠지만, 너도 단단히 준비해라.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직8급 문10)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12, 17, 18, 19, 20, 26, 27, 102, 103, 361, 368, 369)

① 그는 황제를 알현(謁見)했다. (O)

1)謁見(알현): 謁(謁 알) 見(謁 올 현, 볼 견)

a)의미: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

◆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를 의미하는 謁見(알현)은 ‘謁(謁 알) 見(謁 올 현, 볼 견)’을 쓰는데, ‘謁(謁 알)’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가고 ‘見(謁 올 현, 볼 견)’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얼굴을 뵈고(見: 뵈 올 현) 말씀(言: 말씀 언)으로 謁見(알현)하였다.

★한자 ‘見’은 ‘謁 올 현, 볼 견’ 등으로 소리가 난다.

1)見(謁 올 현): 見舅姑(현구고: 신부가 예물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는 일)

2)見(볼 견): 見本(견본), 見解(견해), 見聞(견문), 見蚊拔劍(견문발검).

a)見聞(견문): 見(볼 견, 뵈 올 현) 聞(들을 문). 발음: [견:문][긴소리].

ㄱ) 의미: 듣거나 보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知識).

◆ ‘듣거나 보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을 의미하는 見聞(견문)은 ‘見(볼 견, 뵈 올 현) 聞(들을 문)’을 쓰는데, ‘見(볼 견)’은 그 자체로 쓰고 ‘聞(들을 문)’에는 ‘耳(귀 이)’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영철이는 외국에서 본(見: 볼 견) 것과 귀(耳: 귀 이)로 들은 것이 많아 見聞(견문)이 넓다.

b)見蚊拔劍(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② 역사상 여러 나라가 내홍(內訌)으로 패망하였다. (O)

1)內訌(내홍): 內(안 내, 들일 납) 訌(어지러울 홍). 발음: [내:홍][긴소리]

a)의미: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

◆ ‘內訌(내홍)’은 ‘內(안 내, 들일 납) 訌(어지러울 홍)’을 쓰는데, ‘內(안 내)’는 ‘入(들 입)’이 들어가고 ‘訌(어지러울 홍)’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예약장에 들어갔더니(入: 들 입) 수많은 하객들이 한꺼번에 말씀(言: 말씀 언)을 하자 內訌(내홍)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③ 그 노래는 누가 작사(詐詞)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X) → 作詞(작사)

◆ 作詞(작사): 作(지을 작, 저주 저, 만들 주) 詞(말 사/글 사)

1)의미: 노랫말을 지음.

◆ 노래를 ‘作詞(작사)’하는 것은 ‘作(지을 작) 詞(말 사)’를 쓰는데, ‘詐’는 ‘속일 사’이다. ‘作(지을 작)’은 ‘亻(사람 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사람(亻: 사람 인)은 누구나 히트곡을 作詞(작사)하는 꿈을 꾸다. 그대들도 영보이도... 유행가 ~ 유행가 ~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작사(作査)한다. 쿵쿵따리 쿵쿵따 ㄴ ㄴ ~ .

* 詐詞(사사) ----- 이런 한자어는 없음. < cf. 詐欺(사기)를 당하다. >

④ 이번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상쇄(相殺)한 셈이었다.

1)相殺(상쇄): 相(서로 상) 殺(빠를 쇠, 죽일 살, 감할 살, 맴 도는 모양 설, 뒷사람 죽일 시)

a)의미: 서로 상반(相反)되는 것이 영향(影響)을 주고받아 그 본래의 효과(效果) 따위가 없어짐을 의미함.

b)영어사전: offsetting(차감(差減) 계산(計算), 상계(相計), counterbalance(상쇄하다, 균형(均衡)을 맞추다)

c)'쇄'로 발음(發音)되는 다른 한자어: 殺到(쇄도: 빠를 쇠 / 이를 도), '쇄도'는 긴소리 로 발음된다. [쇄:도](긴소리)

◆ 相殺(상쇄)는 '相(서로 상) 殺(빠를 쇠)'를 쓰는데, '相(서로 상)'에는 '目(눈 목)'이 들어가고 '殺(빠를 쇠)'에는 '木(나무 목)'이 얼핏 보인다.

☺영보이 암기tip) 저기 커다란 나무(木: 나무 목)를 눈(目: 눈 목)으로 자세히 보아도 내 빛을 相殺(상쇄)하기에는 역부족하다.

⑤ 나도 무론(毋論) 힘쓰겠지만, 너도 단단히 준비해라.

1)毋論(무론): 毋(말 무, 관직 이름 모) 論(논할 론(논), 조리 룬(윤))

a)의미: 말할 것도 없이 = 물론

◆ 정답: ③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은 장(莊), 이름은 주(周)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분명치 않다.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의 이상향을 꿈꾸었다. 현실이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서로 베개를 베고 누워 있고, 차꼬를 차고 칼을 쓴 죄수들이 서로 밀칠 정도로 바글거리고, ㉠형륙을 당해 손발 잘린 자들이 서로 마주 볼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도 유가와 묵가의 선생이란 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성(聖)과 지(知), 인(仁)과 의(義)를 잘난 척 떠들어대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과 지는 차꼬나 목에 씌우는 칼의 썰기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인과 의는 죄수의 형구를 채우는 자물쇠와 마찬가지로. 그러니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지려면 먼저 성지(聖知)와 인의(仁義)부터 끊어버려야 한다고.

(나) 온갖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그의 이야기는 시비와 차별의 경계를 가차 없이 부수어버린다. 천자인 요임금과 은자인 허유의 지위가 뒤집히고 성 밖에 사는 천민 남곽자기가 성안에 사는 귀족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소 잡는 백정의 신들린 칼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삶을 구원하는 이치를 찾아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하다고 여겨 절름발이, 언청이, 곱사등이, 사지가 ㉢지리멸렬한 기형불구라고 칭하는 인간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입을 빌려 지고(至高)의 도를 이야기했다. 그가 바란 이상향은 부유하고 귀한 자가 가난하고 천한 자의 삶을 엮여있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다) 노나라의 애태타는 절름발이에다 곱사등이인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추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노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위나라의 인기지리무

순과 제나라의 옹양대영도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기형불구의 인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임금인 그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한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덕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덕이 충만해 있으면 외형의 ㉠결핍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외형의 결핍에 가려 내면의 아름다운 덕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라) 사람만이 아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란 봉새의 비상을 높이 사지만 매미나 메추라기의 날갯짓을 낮추어보지 않았고 황하의 신 하백(河伯)과 북해의 신 약(若)을 한자리에 불러내 우주의 광활함과 천지의 장대함을 노래했다. 까치와 오동나무가 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수십 만 년 을 사는 거북이와 수백 만 년을 사는 상고시대의 대춘나무가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짧은지 깨우쳐준다.

(마) 꿈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길흉을 점치지만 그 자체가 꿈이었다는 이야기다. 그저 꿈을 현실이라 착각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꿈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라는 깨어남을 통해 깨어나야 할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11. 다음 중 각 단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8국회8 문11)

- ① (가): 장주는 유가와 묵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② (나): 장주는 당대의 고정 관념을 허무는 수단으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였다.
- ③ (다): 장주는 인간이 지닌 외형적 조건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 ④ (라): 장주는 시공 차원의 광활함과 무한함을 그것의 협소함과 유한함보다 우위에 두었다.
- ⑤ (마): 장주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계조차 부정하였다.

◆ 정답 및 해설(2018국회8 문11)

① (가): 장주는 유가와 묵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O)

◆ ‘성은 장(莊), 이름은 주(周)다. ~ 유가와 묵가의 선생이란 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성(聖)과 지(知), 인(仁)과 의(義)를 잘난 척 떠들어대고 있었다. ~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과 지는 차꼬나 목에 씌우는 칼의 썰기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인과 의는 죄수의 형구를 채우는 자물쇠와 마찬가지로. 그러니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지려면 먼저 성지(聖知)와 인의(仁義)부터 끊어버려야 한다고.’로 보아 장주는 유가와 묵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② (나): 장주는 당대의 고정 관념을 허무는 수단으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였다. (O)

◆ ‘갓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그의 이야기는 시비와 차별의 경계를 가차 없이 부수어버린다.’로 보아 장주는 당대의 고정 관념을 허무는 수단으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다): 장주는 인간이 지닌 외형적 조건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O)

◆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덕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덕이 충만해 있으면 외형의 결핍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외형의 결핍에 가려 내면의 아름다운 덕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로 보아 장주는 인간이 지닌 외형적 조건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라): 장주는 시공 차원의 광활함과 무한함을 그것의 협소함과 유한함보다 우위에 두었다. (X)

◆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란 봉새의 비상을 높이 사지만 매미나 메추라기의 날갯짓을 낮추어보지 않았고 황하의 신 하백(河伯)과 북해의 신 약(若)을 한자리에 불러내 우주의 광활함과 천지의 장대함을 노래했다. 까치와 오동나무가 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수십 만 년 을 사는 거북이와 수백 만 년을 사는 상고시대의 대춘나무가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짧은지 깨우쳐준다.’로 보아 우주의 광활함과 천지의 장대함을 주시하였고 또한 매미나 메추라기의 날갯짓을 낮추어 보지 않아 어느 것도 우위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무한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우쳐주는 유한함을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⑤ (마): 장주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계조차 부정하였다. (O)

◆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꿈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라는 깨어남을 통해 깨어나야 할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로 보아 장주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계조차 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cf. 莊周之夢(장주지몽): 莊(씩씩할 장/전장 장) 周(두루 주) 之(갈 지) 夢(꿈 몽).

a)의미: 나와 외물(外物)은 본디 하나이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깢 뒤엔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원래 나비였던 자기가 꿈속에서 장주가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유의어 < 주객일체, 물심일여 >

1)주객일체(主客一體): 主(임금 주/주인 주) 客(손 객) —(한 일) 體(몸 체).

a)의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됨.

1)物心一如(물심일여): 物(물건 물) 心(마음 심) —(한 일) 如(같을 여).

a)의미: 사물과 마음이 구분 없이 하나의 근본으로 통합됨.

◆ 정답: ④

12.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8국회직8급 문12)

㉠ 형록	㉡ 은유	㉢ 지리멸렬	㉣ 결핍
------	------	--------	------

㉠ ㉡ ㉢ ㉣

- ① 刑戮 - 隱喻 - 支離滅裂 - 缺乏
 ② 刑戮 - 隱維 - 支離滅裂 - 缺乏
 ③ 刑戮 - 隱維 - 支離滅劣 - 缺乏
 ④ 刑戮 - 隱喻 - 支離滅劣 - 缺乏
 ⑤ 刑戮 - 隱喻 - 支離滅裂 - 缺乏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직8급 문12)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23, 26, 27) (2018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초대박 적중: p. 158, 160, 166, 167)

① 刑戮 - 隱喻 - 支離滅裂 - 缺乏

◆ 刑戮(형록): 刑(형벌 형/탕기 형) 戮(죽일 록(육))

1)의미: 죄지은 사람을 형법에 따라 죽임.

◆ 刑戮(형록)은 ‘戮(합할 록(육))’이 아니라 ‘戮(죽일 록(육))’을 쓴다. ‘戮(죽일 록)’에는 ‘戈(창 과)’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사람을 창(戈: 창 과)으로 찔러 죽이는 刑戮(형록)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 隱喻(은유): 隱(숨을 은) 喻(깨우칠 유)

1)의미: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 隱喻(은유)는 ‘隱(숨을 은) 喻(깨우칠 유)’를 쓰는데, ‘維(벼리 유: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가 아니라 ‘喻(깨우칠 유)’를 쓴다. ‘喻(깨우칠 유)’에는 ‘口(입 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口(口: 입 구)으로 암만 외쳐도 깨우치지(喻: 깨우칠 유) 못하면 隱喻(은유)를 터득(據得)하기 어렵다.

◆ 支離滅裂(지리멸렬): 支(지탱할 지) 離(떠날 리(이)) 滅(꺼질 멸/멸할 멸) 裂(찢을 렬(열))

1)의미: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2)영어사전: incoherence(논리가 맞지 않음, 지리멸렬, 모순), inconsistency(모순, 불일치), contradictory(모순(矛盾)되는), incoherent(모순된, 흐트러진), inconsistent(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disjointed(흐트러진, 지리멸렬한), chaotic(혼돈된, 무질서한)

◆ 支離滅裂(지리멸렬)에서 ‘렬’은 ‘劣(못할 렬)’이 아니라 ‘裂(찢을 렬(열))’이 맞다. ‘裂(찢을 렬(열))’에는 ‘衣(옷 의)’가 들어간다. < cf. 협상이 決裂(결렬)되었다. >

☺영보이 암기tip) 옷(衣: 옷 의)이 찢어질 정도로 支離滅裂(지리멸렬) 상태가 계속되었다.

* 유의어 - 1)支離分散(지리분산): 支(지탱할 지) 離(떠날 리(이)) 分(나눌 분) 散(흩을 산).
 a)의미: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 반의어

1)理路整然(이로정연): 理(다스릴 이(리)) 路(길 로) 整(가지런할 정) 然(그렇 연/불탈 연).

a)의미: 논리나 말이 사리에 잘 맞고 잘 통하여 정연하다는 의미.

◆ 缺乏(결핍): 缺(이지러질 결, 머리띠 규) 乏(모자랄 핍)

1)의미: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 다 써 없어짐.

◆ 缺乏(결핍)은 ‘缺(이지러질 결, 머리띠 규) 乏(모자랄 핍)’을 쓰는데, ‘挾(도려낼 결)’이 아니라 ‘缺(이지러질 결)’을 쓴다. ‘缺(이지러질 결)’에는 ‘山(뫼 산)’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산(山: 뫼 산)의 토양은 영양분이 缺乏(결핍)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 挾乏(결핍) ----- 이런 한자어는 없음.

◆ 정답: ①

13. <보기>의 밑줄 친 ㉠~㉣ 중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8국회직8급 문13)

< 보 기 >

- 이 문제는 입주민들과의 ㉠협의[혀빅]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 외국인들은 한글의 복잡한 ㉡띄어쓰기[띄어쓰기]를 어려워 한다.
- 관객들이 ㉢썰물[썰:물]처럼 빠져나갔다.
-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우리의[우리예] 소망이 이루어질까?
- ㉤반신반의[반:신 바:니] 하는 분위기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3)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6) 표준 발음법 초대박 적중/ 완벽한 정리: p. 440, 441, 442)

③ ㉠㉢㉣ (O)

< 표준발음법 제2장 제5항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닐리리[닐리리] / 닝큼[닝큼] / 무늬[무니] / 띄어쓰기[띄어쓰기] / 씌어[씨어/씨여] / 티어[티어/티여] / 희어[히어/히여] / 희뽕다[히뽕따] / 희망[히망] / 유희[유히])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ㅁ]로, 조사 ‘의’는 [ㅁ]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주의[주의/주이] / 협의[혀빅/혀비] / 우리의[우리의/우리예] / 강의의[강:의의/강:이에])

• 이 문제는 입주민들과의 ㉠협의[혀빅/혀비]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O)

◆ ‘표준발음법 제2장 제5항’ 참조

•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우리의[우리의/우리예] 소망이 이루어질까? (O)

◆ ‘표준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4’ 참조

• ㉤반신반의[반:신 바:니/반:신 바:니] 하는 분위기였다. (O)

◆ ‘표준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4’ 참조

- 외국인들은 한글의 복잡한 ㉠띄어쓰기[띄어쓰기]를 어려워 한다. (X) → [띄어쓰기]
◆ ‘표준발음법 제2장 제5항’ 참조
- 관객들이 ㉡썰물[썰:물]처럼 빠져나갔다. (X) → [썰물][짧은 소리]
◆ 썰물은 첫소리가 긴소리가 아니라 짧은 소리이다.
㉢영보이 암기tip)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사인 행렬은 급격히 짧아졌다.
< 썰물처럼 - 짧아졌다 >

◆ 정답: ③

14. 다음 <보기> 중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르면? (2018국회8 문14)

< 보 기 >

ㄱ. 얼룩배기 ㄴ. 판때기 ㄷ. 나이빠기 ㄹ. 이맞배기 ㅁ. 거적때기 ㅂ. 상판대기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ㅂ ⑤ ㄴ, ㅁ, ㅂ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4)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9) 한글 맞춤법 초대박 적중, 완벽 정리: 494, 495)

◆ 한글맞춤법 제6장 54항 해설(3): ‘-대기 / -때기’는 ‘때기’로 적는다.(거적때기 / 나무때기 / 등때기 / 배때기 / 송판때기 / -판때기(널~) / 팔때기 < 예외: 상판대기[상판때기] >

◆ 한글맞춤법 제6장 54항 해설(5): ‘-배기 / -빠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는다.(귀통배기 / 나이배기 / 대짜배기 / 육자배기 / 주정배기 / 포배기 / 혀짤배기) < cf. 예외: 언덕배기[언덕빠기] >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빠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 (제5항 다만 참조) (뚝배기 / 학배기[蜻幼蟲])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빠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빠기’로 적는다.(고들빠기 / 그루빠기 / 대갈빠기 / 머리빠기 / 재빠기 [嶺頂] / 곱빠기 / 과녁빠기 / 밥빠기 / 악착빠기 / 앞둑빠기 / 앞작빠기 / 억척빠기 / 엷둑빠기 / 엷빠기 / 엷적빠기) < cf. 얼룩빠기 / 이마빠기 / 나이빠기 > >

ㄴ. 판때기 (O): 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판때기 맞춤법 틀리면 판으로 때리기 < 판때기 - 판으로 때리기 >

ㅁ. 거적때기 (O): 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진정한 때밀이는 거적때기라도 고객의 때를 아프지 않게 밀어야 한다. < 진정한 때밀이 - 거적때기 >

ㅂ. 상판대기 (O): 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영화배우처럼 상판대기기 아무리 좋아도 대기실에서 대기해.

< 상판대기 - 대기해 >

ㄱ. 얼룩배기 (X) → 얼룩배기(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을 배고 있다. < 얼룩배기 황소 -얼룩 배 >

ㄴ. 나이빠기 (X) → 나이배기(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요즘 배가 나오니 나이배기라는 소리를 덜 듣는군.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둘.. 어서 운동해! < 배가 나오니 - 나이배기 >

ㄷ. 이맛배기 (X) → 이마배기(위 해설 참조)

☺영보이 암기tip) 너는 이마배기가 안 예쁘니 아바타 만들 때 이마는 배라.

< 이마마배가 안 예쁘니 - 이마는 배 >

◆ 정답: ⑤

15.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문장 부사가 실현된 것은? (2018국회8 문15)

부사는 한 성분을 수식하느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 ①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② 집 바로 뒤에 공원이 있다.
- ③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는다.
- ④ 일 끝나면 이리 와.
- ⑤ 의외로 철수가 빨리 왔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5)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완벽 정리)

◆ 성분 부사: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 '성상 부사(性狀副詞)', '지시 부사(指示副詞)', '부정 부사(否定副詞)' 따위가 있다.

◆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로 나뉜다.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곧', '및', '혹은', '또는' 따위가 있다.

①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활짝'은 문장의 한 성분인 동사(피었다/기본형: 피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

② 집 바로 뒤에 공원이 있다.

◆ '바로'는 문장의 한 성분인 명사(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

③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는다.

◆ '안'은 문장의 한 성분인 동사(먹는다/기본형: 먹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

④ 일 끝나면 이리 와.

◆ '이리'는 문장의 한 성분인 동사(와/기본형: 오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

⑤ 의외로 철수가 빨리 왔다. (O)

◆ '의외로'는 문장 전체인 '철수가 빨리 왔다'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

◆ 정답: ⑤

16. 다음 중 밑줄 친 ‘의’의 쓰임이 다른 것은? (2018국회8 문16)

- 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 ②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 ③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 | 며
- ④ 민족의 갈 길은 정해졌다.
- ⑤ 일본의 소의함을 죄하러 안이하노라.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6)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7) 기
미독립선언서 초대박 적중, 완벽 정리)

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주격의 ‘의’)

◆ = 조선의 독립국임과 ~ .

②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동격의 ‘의’)

◆ 민족자존이라는 정당한 권리(정권(正權))

③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 | 며 (주격의 ‘의’) < 생존권의 빼앗기고 잃은 것이 얼마이며 >

◆ = 생존권의 박상됨이

◆ 박상(剝喪): 벗겨져 없어짐.

④ 민족의 갈 길은 정해졌다. (주격의 ‘의’)

◆ = 민족의 갈 길은

⑤ 일본의 소의함을 죄하러 안이하노라. (주격의 ‘의’) < 일본의 의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 = 일본의 소의함을

◆ 소의(少義): 의리가 적음. 또는 그 의리.

◆ 정답: ②

17. 다음과 같은 사전의 풀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문장 가운데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17)

㉠뜻이: 의존 명사.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뜻: 의존 명사. ①‘뜻이’의 준말. ②(‘-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
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뜻이: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뜻: 어미. ‘-뜻이’의 준말.

㉤듯하다: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① 예전에는 여기가 황량했던 듯하다.

②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

③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④ 거대한 파도가 일 듯이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가 일었다.

⑤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사람도 아는 게 많을수록 조용하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7)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9) 띄어쓰기 초대박 적중, 완벽 정리: p. 128, 129, 141, 143)

① 예전에는 여기가 황량했던 듯하다. (O)

◆ 듯하다: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②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 (O)

◆ 듯이: 의존 명사.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O)

◆ 듯: 의존 명사. ①‘듯이’의 준말

◆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거대한 파도가 일 듯이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가 일었다. (X) → 일듯이

◆ 여기서 ‘듯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듯이: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⑤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사람도 아는 게 많을수록 조용하다. (O)

◆ ①-듯: 어미. ‘-듯이’의 준말.(◎의 준말)

◆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정답: ④

18. <보기>의 밑줄 친 한자어의 한글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18)

< 보 기 >

오늘은 『墨子』를 읽습니다. 反戰思想과 함께 墨子思想의 ①精髓라고 할 수 있는 ②兼愛思想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③‘無鑑於水’는 널리 알려진 글귀는 아닙니다. 내가 많이 紹介하는 편입니다. 물에(於水) 비추어 보지 마라(無鑑)는 뜻입니다. 물은 옛날에 거울이었습니 다. ④銅鏡이 나오기 전에는 물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물에 비추어 보면 얼굴만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鑑於人’, 사람에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 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면 ⑤外貌만 보게 되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 의 人間的品性이 드러납니다. 人文學的인 메시지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共感할 수 있는 金 言입니다.

① ㉠ 정수 ② ㉡ 경애 ③ ㉢ 무감어수 ④ ㉣ 동경 ⑤ ㉤ 외모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8)

오늘은 『墨子(묵자)』를 읽습니다. 反戰思想(반전사상)과 함께 墨子思想(묵자사상)의 ①精 髓(정수)라고 할 수 있는 ②兼愛思想(겸애사상)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③‘無鑑於水(무감 어수)’는 널리 알려진 글귀는 아닙니다. 내가 많이 紹介(소개)하는 편입니다. 물에(於水) 비

추어 보지 마라(無鑑)는 뜻입니다. 물은 옛날에 거울이었습니다. ㉠銅鏡(동경)이 나오기 전에는 물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물에 비추어 보면 얼굴만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鑑於人(감어인)’, 사람에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면 ㉡外貌(외모)만 보게 되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의 人間的品性(인간적품성)이 드러납니다. 人文學的(인문학적)인 메시지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共感(공감)할 수 있는 金言(금언)입니다

㉢精髓(정수): 精(짙을 정) 髓(뺨골 수)

1)의미: 뼈 속에 있는 골수. / 사물의 중심이 되는 골자 또는 요점.

㉣兼愛思想(겸애사상): 兼(겸할 겸) 愛(사랑 애) 思(생각 사) 想(생각 상)

1)의미: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듯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묵자가 주장하였다.

㉤‘無鑑於水(무감어수): 無(없을 무) 鑑(거울 감) 於(어조사 어) 水(물 수)

1)의미: 물에(於水) 비추어 보지 마라(無鑑)는 뜻.

㉥銅鏡(동경): 銅(구리 동) 鏡(거울 경)

1)의미: 구리로 만든 거울. 통일 신라 시대의 유물.

㉦外貌(외모): 外(바깥 외) 貌(모양 모, 모사할 막). 발음: [외:모](긴소리)

1)의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 정답: ㉡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18)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 모란이 피기까지는 > -

① 시각적으로 분연되지 않은 단연시이지만 서술 구조상 2행이 한 연으로 묶여 전체적으로 2행 6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짧고 긴 호흡의 반복적 교체로 음악성을 구현한다.

③ 가시적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서 이에 대한 시적 자아의 정서상 변화를 보여준다.

- ④ 3, 4, 5, 6행은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묶인다.
⑤ 크게 모란이 피는 상황과 모란이 진 상황을 보여준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19)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완벽 정리)

모란이 피기까지는(1행)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2행)
◆ 1행, 2행: 모란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3행)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4행)
◆ 3행, 4행: 모란이 질 때면 슬픔에 잠김.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5행)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6행)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7행)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8행)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9행)
삼백 예수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10행)
◆ 5행 ~ 10행: 모란이 지고 난 다음 슬픔과 절망감에 빠짐.
모란이 피기까지는(11행)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12행)
◆ 11행,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수미 상관의 구성)

- ① 시각적으로 분연되지 않은 단연시이지만 서술 구조상 2행이 한 연으로 묶여 전체적으로 2행 6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O)
◆ 서술 구조상 2행 6연으로 총 12행 형태이다.
② 짧고 긴 호흡의 반복적 교체로 음악성을 구현한다. (O)
◆ 모란이 지고 기다리는 심정을 짧고 긴 호흡의 반복적 교체로 음악성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시적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서 이에 대한 시적 자아의 정서상 변화를 보여준다. (O) ◆ 가시적 현상(모란이 짐) → 정서(슬픔과 절망) → 정서 변화(모란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림)

④ 3, 4, 5, 6행은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묶인다. (X)
◆ 1, 2행 / 3, 4행 / 5, 6, 7, 8, 9, 10행 / 11, 12행
◆ ‘3, 4, 5, 6행’이 아니라 ‘5, 6, 7, 8, 9, 10행’(모란이 지고 난 다음 슬픔과 절망감에 빠짐)이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 ⑤ 크게 모란이 피는 상황과 모란이 진 상황을 보여준다. (O)
◆ 모란이 지는 상황: 슬픔과 절망감에 빠짐
◆ 모란이 피는 상황: 모란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림.

◆ 정답: ④

20. 다음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은? (2018국회8 문20)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은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어떤 사실을 사진 없이 글로만 전할 때와 사진을 곁들여 전하는 경우에 독자에 대한 기사의 설득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분명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대상을 찍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됐는지, 그 사진 속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분명히 한 장의 사진에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그것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진은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들이 권력자나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 ①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강화시켜 주며 보도 대상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② 사진은 사실성의 강화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서술성의 부족이라는 단점도 지닌다.
- ③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서 항상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 ④ 사진은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서술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⑤ 사진은 서술성이 부족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20)

- ①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강화시켜 주며 보도 대상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은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로 보아 글의 요지가 아니라 글의 단편적 내용에 불과하다.

② 사진은 사실성의 강화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서술성의 부족이라는 단점도 지닌다.
◆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은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 ~ 그러나 ~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됐는지, 그 사진 속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진은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들이 권력자나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로 보아 ‘② 사진은 사실성의 강화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서술성의 부족이라는 단점도 지닌다.’가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서 항상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은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어떤 사실을 사진 없이 글로만 전할 때와 사진을 곁들여 전하는 경우에 독자에 대한 기사의 설득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분명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대상을 찍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됐는지, 그 사진 속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로 보아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인 것은 맞지만 항상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사진은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서술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진은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로 보아 사진은 사실성이 높은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사진은 서술성이 부족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진은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로 보아 사진이 서술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②

21.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은? (2018국회8 문21)

사람과 만물은 한가지로 천지의 큰 조화 사이에서 생겨났으니, 백성은 나의 형제요 만물은 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으뜸이 되고 만물은 그 다음이 된다. 그 만물을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아주 가는 그물을 웅덩이나 못에 넣지 아니하며, 도끼와 낫질을 하되 산림의 때를 가려서 하며, 물고기가 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저자에서 팔지 못하는 것이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물을 열어놓고 새와 짐승의 자유를 빌며, 낚시질은 하되 그물 버리를 이어서 고기를 잡지는 않는 것이며, 활로 쏘기는 하나 잠자는 것을 쏘지는 않는 것이다.

- ① 차별(差別)의 정서 ② 생명(生命)의 조화 ③ 인애(仁愛)의 마음
④ 공감(共感)의 태도 ⑤ 융화(融和)의 양태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21)

① 차별(差別)의 정서 < 차별(差別):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② 생명(生命)의 조화

③ 인애(仁愛)의 마음 (O)

◆ 인애(仁愛):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또는 그 사랑.

◆ ‘사람과 만물은 한가지로 천지의 큰 조화 사이에서 생겨났으니, 백성은 나의 형제요 만물은 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으뜸이 되고 만물은 그 다음이 된다. 그 만물을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아주 가는 그물을 웅덩이나 못에 넣지 아니하며, 도끼와 낫질을 하되 산림의 때를 가려서 하며, 물고기가 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저자에서 팔지 못하는 것이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물을 열어놓고 새와 짐승의 자유를 빌며, 낚시질은 하되 그물 버리를 이어서 고기를 잡지는 않는 것이며, 활로 쏘기는 하나 잠자는 것을 쏘지는 않는 것이다.’로 보아 인애(仁愛)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감(共感)의 태도 < 공감(共感):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

⑤ 융화(融和)의 양태 < 융화(融和):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됨. > ◆ 정답: ③

2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회8 문22)

님이 오마 허거늘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 고오^ㄴ 가^ㄴ가^ㄴ가^ㄴ건년 산(山) ㅂ 라보니 거머 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껏빅님빅 님빅곰빅 천
방지방 지방천방 존 디 ㅁ 룬디 ㄱ 희집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허려 ㅎ고 껏눈
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ㄱ 자벌긴 주추리 삼대 ㅅ 드립도 날 소겨다. 모
쳐라 밤일식만정 행혀 낮이런들 우일 번혀괘라

- ① 조선 후기에 등장한 문학 형태이다.
- ② 평민 가객들이 주로 노래한 것이다.
- ③ 해학을 통해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8 문22)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 사설시조 완벽 정리)

< 사설시조 >

님이 오마 허거늘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 임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 중문에 나가 >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 고 < 대문 앞을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라 앉아 손을 이마에 올리고 >

오^ㄴ 가^ㄴ가^ㄴ가^ㄴ건년 산(山) ㅂ 라보니 거머 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 오는가 가는가 건년 산 바라 보니 거머희끗한 것이 셔 잇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껏빅님빅 님빅곰 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 버션 벗어 가슴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앞치락뒤치락 허둥지둥 대며 >

존 디 ㅁ 룬디 ㄱ 희집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말고 재빨리 건너가서 >

정(情)옛말 허려 ㅎ고 껏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ㄱ 자벌긴 주추리 삼대 ㅅ 드립도 날 소겨다. < 정답게 말하려고 겉눈으로 흘긔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에 벗겨놓아 세워둔 삼대가 완전히 날 속였구나, >

모쳐라 밤일식만정 행혀 낮이런들 우일 번혀괘라 < 두어라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어나 낮이었으면 (남들이) 웃을 뻔 하였구려, >

- ① 조선 후기에 등장한 문학 형태이다. (O)
◆ 사설시조는 17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18세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 ② 평민 가객들이 주로 노래한 것이다. (O)
◆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 가객들이 서민들의 삶과 일상을 노래하였다.
- ③ 해학을 통해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O)
◆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 서민들의 힘든 삶 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해학으로도 자유롭게 표현해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O)

◆ 구체적인 사물인 ‘동난지(계절)’를 통해 상거래 장면을 대화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 사설시조 >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왜는다 사자 < 닻들아 동난지(계절) 사시오, 저 장사야 네 무엇이랴 외치는가 사자 >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 스스 하는 동난지이 사오 < 외골내육 양눈이 하늘을 향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작은 다리 여덟 개의 큰 다리 두 개 청장(진하지 않은 간장)으로 만든 아삭아삭한 동난지 사시오, >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계절이라 하렴은. < 장사야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계절이라 하려므나, >

* 허장성세(虛張聲勢):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⑤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X)

◆ 사설시조는 화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해석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므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모순이다.

< 사설시조 >

꿇도리 저 꿇도리 예엿부다 저 꿇도리 <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

어인 꿇도리 지는 돌 새는 밤의 < 어찌하여 귀뚜라미는 달이 지고 밤이 새도록 >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이 슬픈 소리 <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

제 혼자 우레내어 < 자기 혼자 울어 >

紗窓 여인 즈음 술드리도 씨오논고나 < 비단 창문 안 살짝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

두어라 제 비록 微物이나 <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

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뿐인가 흐노라 < 외로이 홀로 사는 내 뜻을 알리는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 가을 밤 임을 그리워 함. / 귀뚜라미에 감정이입

◆ 정답: ⑤

2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국회직8급 문23)

- ① 좀 더 넓은 堅持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개개의 인간이 모여 하나의 集團을 이룬다.
- ③ 혈연 중심의 가족 집단을 넘어 사회를 形成하게 된다.
- ④ 인간에게 사회는 實體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⑤ 그러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要素혹은 요인은 무엇일까?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직8급 문23)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 초대박 적중 p. 47, 50, 51, 55, 96, 100, 101, 231, 242, 243, 248, 249, 390, 396, 394)

① 좀 더 넓은 堅持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X)

◆ 堅持 (X) → 見地(견지)

1)見地(견지): 見(볼 견) 地(땅 지). 발음: [견:지](긴소리)

a)의미: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관찰하는 입장.

◆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관찰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見地(견지)는 ‘見(볼 견) 地

(땅 지)’를 쓰는데, 둘 다 각각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공인중개사의 見地(견지)로 보면(見: 볼 견) 하찮은 땅(地: 땅 지)이라도 노른자 땅이 될 수 있다.

*동음이의어

◆ 堅持(견지): 堅(굳을 견) 持(가질 지)

1)의미: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 / 굳게 지지함.

◆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 / 굳게 지지함’을 의미하는 堅持(견지)는 ‘堅(굳을 견) 持(가질 지)’를 쓰는데 ‘堅(굳을 견)’에는 ‘土(흙 토)’가 들어가고 ‘持(가질 지)’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손(扌: 손 수)에 흙(土: 흙 토)이 묻더라도 농사는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堅持(견지)해야 한다.

② 개개의 인간이 모여 하나의 集團을 이룬다. (O)

1) 集團(집단): 集(모을 집) 團(둥글 단/경단 단)

a)의미: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

◆ ‘集團(집단)’은 ‘集(모을 집) 團(둥글 단)’을 쓰는데, ‘集(모을 집)’에는 ‘隹(새 추)’가 들어가고 ‘團(둥글 단)’에는 ‘口(에워쌀 위)’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중국 발 황사가 새(隹: 새 추)집을 에워싸자(口: 에워쌀 위) 건강한 새들까지도 集團(집단) 폐사(斃死)하였다.

③ 혈연 중심의 가족 집단을 넘어 사회를 形成하게 된다. (O)

1)形成(형성): 形(모양 형) 成(이룰 성)

a)의미: 어떤 형상을 이룸.

◆ ‘形成(형성)’은 ‘形(모양 형) 成(이룰 성)’을 쓰는데, ‘形(모양 형)’에는 ‘彡(터럭 삼: 길게 자란 털)’이 들어가고 ‘成(이룰 성)’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길게 자란 털(彡: 터럭 삼: 길게 자란 털)을 모아 수만 개가 이루어지면(成: 이룰 성) 가발이 形成(형성)된다. 모발 ~ 모발 ~ .

④ 인간에게 사회는 實體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O)

1)實體(실체): 實(열매 실, 이룰 지) 體(몸 체)

a)의미: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 ‘實體(실체)’는 ‘實(열매 실) 體(몸 체)’를 쓰는데, ‘實(열매 실)’에는 ‘貝(조개 패)’가 들어가고 ‘體(몸 체)’에는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달(月: 달 월)에서 조개(貝: 조개 패)를 먹고 있는 實體(실체)가 진정 토끼란 말이나?

⑤ 그러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要素혹은 요인은 무엇일까? (O)

1)要素(요소): 要(요긴할 요) 素(본디 소/힐 소)

a)의미: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效力)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成分). 또는 근본 조건(條件).

b)영어사전: element(요소, 성분), factor(요인(要因), 요소, 원인(原因)), requisite(필수의, 필수품(必需品), 요소, 여건(與件)), constituent(구성(構成)하는, 성분(成分)이 되는)

◆ ‘핵심적 요소(要素), 구성 요소(要素)’에서 要素(요소)는 ‘要(요긴할 요) 素(본디 소/힐

소)’를 쓰는데, ‘要(요긴할 요)’에는 ‘女(여자 여)’가 들어가고 ‘素(본디 소/흰 소)’에는 ‘糸(가는 실 사/떡)’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합격을 위한 필수 要素(요소)는 여자(女: 여자 여)를 멀리하고 유혹(誘惑)을 가는 실(糸: 가는 실 사)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동음이의어

1)尿素 - 요소 (O): 要(요긴할 요) 素(본디 소/흰 소)

1)의미: 카보닐기에 두 개의 아미노기가 결합된 화합물. 무색의 고체로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분해(分解)하여 생성되고, 공업적으로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서 합성(合成)된다. 포유류의 오줌에 들어 있으며, 요소 수지(樹脂), 의약(醫藥) 따위에 쓰인다. 화학식은 (NH₂)₂CO

☺영보이 암기tip) 만화영화 머털도사에서 나오는 108 요괴들의 오줌에도 요소(尿素)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이 요괴(妖怪)들이 오줌으로 변해라. 라해변 ~ < 108요괴 - 요소(尿素) >

◆ ‘카보닐기에 두 개의 아미노기가 결합된 화합물’을 가리키는 ‘尿素(요소)’는 ‘尿(오줌 요(뇨)) 素(본디 소/흰 소)’를 쓰는데, ‘尿(오줌 요(뇨))’에는 ‘水(물 수)’가 들어가고 ‘素(본디 소/흰 소)’에는 ‘糸(가는 실 사/떡)’이 들어간다.

☺영보이 한자 암기tip) 물(水: 물 수)을 많이 마시고 가는 실(糸: 가는 실 사)처럼 오줌을 누다 해도 그 안에는 尿素(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 정답: ①

24. 다음 (가)~(마)의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2018국회직8급 문24)

(가) 충실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론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얻어 낸 결론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상반된 결론들이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야의 특성상 엄밀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자주 빚어지는 것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려내야 한다.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을 과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 최근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정확하다’, ‘완벽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혼란은 오히려 과학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만들었고, 과학 방법에 충실한 과학을 그렇지 못한 유사 과학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흔히들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나,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 방법이다. 과학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귀납법은 실험, 관찰, 통계와 같은 방법

으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연역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추론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마) 과학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다)-(나)-(라)-(마)-(가) ② (다)-(나)-(마)-(라)-(가) ③ (다)-(라)-(나)-(가)-(마)
④ (마)-(가)-(라)-(다)-(나) ⑤ (마)-(라)-(가)-(다)-(나)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직8급 문24)

① (다)-(나)-(라)-(마)-(가) (O)

◆ (다)-(나)-(라)는 관련된 내용이나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전개되고 있고 (라)에 대한 반론으로 (마)가 그 다음에 오며, (가)는 (마)와 관련된 내용이 꼬리를 물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논리적 순서는 (다)-(나)-(라)-(마)-(가)

(다) 최근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정확하다', '완벽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혼란은 오히려 과학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만들었고, 과학 방법에 충실한 과학을 그렇지 못한 유사 과학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흔히들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나,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다)는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며 도입부분에 해당하므로 제일 먼저 온다.

(나)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려내야 한다.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을 과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가)의 내용인 '과학이나, 아니냐'의 꼬리를 물며 (나)로 이어지고 있다.

(라)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 방법이다. 과학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귀납법은 실험, 관찰,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연역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추론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 (나)의 내용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의 꼬리를 물며 (라)로 이어지고 있다.

(마) 과학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마)는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라)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가) 충실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론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얻어 낸 결론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상반된 결론들이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야의 특성상 엄밀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자주 빚어지는 것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가)는 (마)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과 이어지고 이 글을 종합적으로 맺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 정답: ①

25.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8국회직8급 문25)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쌀이며 나무 옷감 같은 생활필수품 값이 올라가면 소위 서화니 골동이니 하는 사치품 값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법인데, 요새같이 ㉠책사에까지 고객이 딱 끊어졌다는 세월에도 추사 글씨의 값만은 한없이 올라간다. 추사 글씨는 확실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필 추사의 글씨가 제가(諸家)의 법을 모아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서 맛이 아니라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돈 안 받고 거저 줄 것들만 같아 보인다. 근년래 일약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 중에도 얼굴이 탁 티고 점잖은 것을 보면 필시 그들의 사랑에는 추사의 ㉢진적이 구석구석에 호화로운 장배로 붙어 있을 것이리라.

- | | | |
|----------------|----------------|----------------|
| ㉠ 冊絲 - 詩經 - 眞籍 | ㉡ 冊肆 - 詩境 - 眞跡 | ㉢ 冊肆 - 詩境 - 眞寂 |
| ㉣ 冊絲 - 詩經 - 眞迹 | ㉤ 冊使 - 詩境 - 眞蹟 | |

◆ 정답 및 해설 (2018국회직8급 문25)

② 冊肆 - 詩境 - 眞跡 (O)

㉠ 冊肆(책사): 冊(책 책) 肆(방자할 사)

1)의미: 서점(書店)

◆ ‘서점(書店)’을 의미하는 ‘冊肆(책사)’는 ‘冊(책 책) 肆(방자할 사)’를 쓰는데, ‘絲(실 사), 使(하여금 사)’가 아니라 ‘肆(방자할 사)’를 쓴다. ‘肆(방자할 사)’에는 ‘聿(붓 을)’을 쓴다.

☺영보이 암기tip) 옛날 冊肆(책사) 앞에는 붓(聿: 붓 을)을 많이 팔았다.

㉠ 詩境(시경): 詩(시 시) 境(지경 경)

1)의미: 시의 경지. / 시흥을 불러일으키거나 시정(詩情)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경지.

◆ ‘詩境(시경)’은 ‘詩(시 시) 境(지경 경)’을 쓰는데, ‘經(지날 경)’이 아니라 ‘境(지경 경)’을 쓴다. ‘境(지경 경)’에는 ‘土(흙 토)’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흙(土:흙 토)으로 지은 집이라도 시인의 방에 추사의 글씨를 걸면 詩境(시경)이 높아 보인다.

㉡ 眞跡(진적): 眞(참 진) 跡(발자취 적)

1)의미: 실체의 유적

◆ 眞跡(진적)은 ‘眞(참 진) 跡(발자취 적)’을 쓰는데, ‘籍(문서 적), 寂(고요할 적),’이 아니라 ‘跡(발자취 적)’을 쓴다. 또한 ‘迹(자취 적), 蹟(자취 적)’을 쓸 수도 있다. ‘跡(발자취 적)’에는 ‘足(발 족)’이 들어간다. < 眞跡 = 眞蹟 = 眞迹 >

☺영보이 암기tip) 추사 김정희의 眞跡(진적)을 알아보려면 그가 살던 땅을 직접 밟(足: 발 족)로 밟아보는 노력을 해라.

◆ 정답: ㉡

- 영보이 저서 -

◆ (한자는 영보이)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 판매 중 >

★ (고사성어는 영보이) 2019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 판매 중 >

◆ (마무리는 영보이)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